

상속채무, 파산 통한 정리도 가능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채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해 단순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다.

법적인 상속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거나, 상속과정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상속 자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나 한정승인(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 부담을 지는 것) 등을 논의해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상속절차를 잘 모르거나, 채무 파악이 어렵고, 도와 줄 변호사가 없을 경우 뒤늦게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단순상속 또는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상속채무가 매우 많고, 채권자들도 다수일 경우 상속재산파산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

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제307조)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뒀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해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예를 들어보자. A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대표로서 연대보증한 회사 채무들을 그대로 상속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회사의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아버지가 부담했던 연대보증채무도 점점 증가하는 중이다. 다행히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한정승인을 택해 아버지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차량도 있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도 있어서 그 가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씩 분배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 와중에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불안함에 A에게 채권변제

를 앞다퉈 독촉하는 중이다.

물론 A는 임의대각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비율대로 분배하는 청산과정을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A가 임의대로 청산을 진행하다가 채권비율대로 배당이 되지 못했거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면 후추 채권자들로부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다(민법 제1038조). 물론 청산과정에서 직접 채권자들과 연락해야 하는 것 역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절차와 함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M&A)에 의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면 A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일단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환가 및 배당 과정을 모두 파산관재인이 총괄하게 된다. A가 더 이상 채무의 변제 방법이나 배당을 계산 등에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갈라치기 연금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별 차등화'가 등장했다. 연금보험료율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기간이 긴 청년세대와 보험료를 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성세대에 차등을 두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세대별 차등화 방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청년세대에게 이례적으로 호응을 얻었다. 고령화 및 출생률 감소로 향후 보험료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 성장기의 수혜를 본 기성세대가 그 부담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성세대는 세대별 차등화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전례가 없고, 연금 소득이 없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와중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발이다.

세대 간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각에서는 '갈라치기'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일반적으로 많은 부담을 짊어진다라는 해석은 옳지 않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부담하게 될 최종 연금보험료율은 13%로 같고, 현행 보험료율인 9%에서 최종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다.

함께 논의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따라 출생률 반등 없이는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반대로 내야 할 보험료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성세대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파른 출생률 감소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정치권은 '표 싸움'을 위해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연금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어제는 여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켰다면, 오늘은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는 모양새다.

결국 '갈라치기' 또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켜야 할 정치권이 그 역할을 포기하고, 반대로 갈등을 부추기면서 등장한 표현이다.

연금개혁 없이는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본연의 역할인 계층 간 격차 완화, 노인 빈곤의 해소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정쟁과 표 싸움을 뒤로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asj1231@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9일 (금 8월 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번뇌에는 기도나 명상으로 극복해나가는 수밖에. 48년생 때를 만나는 것처럼 제2의 인생 기회로 좋은 일. 60년생 가족의 구호는 겸손으로. 72년생 부모님 차를 바꾸려면 연금 관련도 점검해볼 것. 84년생 낮에 운전은 신호대로 가야.



37년생 문화센터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자. 49년생 양지보다 음지를 선택해서 사는 동식물이 있다. 61년생 심은 대로 거둔다 약속 지키며 살자. 73년생 인생에 운이 없으면 피장봉호避難逢虎 노루를 피하니 범이 온다. 85년생 계약이 성사.



38년생 손에 뒤통배 가듯이 손조로운 하루. 50년생 너무 늦은 깨달음으로 발등을 찍고 싶다. 62년생 장애를 거치고 나면 다른 장애가 기다리는 것이 인생사. 74년생 기술투자를 시작해보자. 86년생 농사지으면서 풍년에 감사하다.



39년생 가족과 이별하는 기간을 받아들이자. 51년생 역사에서 왕권과 이상계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63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75년생 기량비에 못 짓는 줄 모르고 지출한다. 87년생 희망을 품어라 다가온다.



40년생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국에 나에게 돌아온다. 52년생 깔끔한 포기거나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 64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76년생 풍수의 적용은 무덤만이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 88년생 솔로로의 지혜를.



41년생 돈 없는 친구를 무시하지 말 것. 53년생 동물을 키우려면 먼저 기본 질서부터 지킬 것. 65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같은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 77년생 남을 이간질하면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89년생 5시 신호를 지켜라.



42년생 자식 자랑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지경. 54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 써라. 66년생 운세가 상승선에 있으니 추진해도 될 듯. 78년생 운이 원만하니 이사를 하고 승진 소식. 90년생 몸이 아플 수 있으니 건강주의.



43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55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당연히 더러워진다. 67년생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도록. 79년생 흉랑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기다려라. 91년생 오늘 외출한다면 좋은 일일.



44년생 동물을 생명으로 보는 마음. 56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면 낭패를 당한다. 68년생 진실이 항상 최상의 답은 아니다. 80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까지는. 92년생 기름진 땅이 번식 될 수.



45년생 뒤늦게 다시 비상한 발전이 따른다. 57년생 슬픔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극복해야 한다. 69년생 조직에서 귀인의 도움이나 원조가 오고 있다. 81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되니 최선을 다하라. 93년생 하루 시작을 기념.



46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8년생 수영을 하러 바다에 나왔으니 일단 물에 입수. 70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82년생 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국 레드카펫의 주인공이 된다. 94년생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47년생 자식 끼리 자두연기 되지 않게. 59년생 실패를 겪어봐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71년생 땀을 흘려 노력할 때 반사 이익이 있다. 83년생 세상일이 뜻대로 잘될 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시작을. 95년생 동료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김상회의四季

중화는 삶의 지혜



월요일 병자일丙子日 백로白露가 지났으니 갑진년甲辰의 계유월癸酉酉이다. 명리십간命理十干에서 수화희상제水火希相濟하니 병화丙火가 임수壬水를 만나고 임수가 병화를 보면 귀를 말 할 수 있다. 강휘상영江暉相映 강물과 햇빛이 반짝이며 비추어지니 충성심과 복종심이 두터우므로 조직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임丙과 병丙에 목木이 통관通貫하면 귀명貴命이 될 수밖에 없다. 병화는 임수를 만나 기뻐하는데 계수癸水는 빛을 가리는 구름과 같아 꺼린다.

이때 임수壬水는 통근通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로 병화일주는 일 년의 계획에서 7월 壬申월에 결실을 거의 마무리했어야 함이다. 부족함이 있다면 8월 계유월 癸酉月을 보내고 9월 갑술월甲戌月을 기대하면 될 것이다.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사주는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주라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팔자에서 대부분 어떤 기운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또 어떤 특징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모자라다거나 없는 글자가 많다. 이를 두고 사주를 나쁘다 좋다고 논하기는 어렵다. 부족하고 넘치는 기운을 취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명리학 고전에서는 말한다.

예로부터 삶에서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충돌이 생길 때 중용을 지표로 삼았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 준다는 철학이다. 명리학이 중요하게 추구하는 중화는 결국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균형과 조화는 삶의 근원적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는 데는 팔자학에만 국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떨어내고 채우라는 말인가. 그런저런 연유로 효 풍수 부적 기도 적선 공덕 기다림 등 방법을 찾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6			5		7
7	8					
			6	7		
						8
		9	6			
1						
		4	3			
						2 8
9	2					4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7	2	8	9	9	2	8	6
8	2	8	6	2	1	7	9	9
6	9	9	8	2	1	2	8	
9	6	7	9	8	2	1	8	
9	2	1	9	8	6	8	7	2
8	8	2	7	1	2	9	6	9
2	8	8	2	9	9	6	2	1
2	9	6	1	7	8	9	8	2
2	1	9	2	6	8	8	9	7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1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61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